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나라는 걸 세울게 없다

☞ A13면에서 계속

거야. 그저 관세음보살! 쪼금만 저거 해도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뭔지나 알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합니까? 우리들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관세음이란 얘깁니다, 관세음. 진리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이름. 그래 진리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관세음이라고 그랬죠. 허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살고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게 관세음이에요. 누구는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죠.

그 마음이 중합니다. 모두가 가톨릭교니 기독교니 불교니 할 것 없이, 알라신교니 티베트 불교니 모두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한 "네가 없다면 뭐가 있겠느냐. 너부터 알라." 그 말 한마디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이날까지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또는 사대 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역대 선지식들이 다 그랬죠.

글귀로다가 문자로, 온통 이론으로 다 알고 경전을 오만 거를 다 읽고 해도, 경허 스님도 그랬듯이 앞에 딱 닥치면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 옮을까 봐. 그 해결을 못 하고. 그러니까 책이란 책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때서부터 마음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물리가 터져서 스스로서 평화스럽고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법이 되고 자동적으로 화하고 자동적으로 보신이 되는 그 도리를 알게 돼서,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둘이 아닌 도리로서 둘이 아니게 나툼을 나투면서 건져 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부처도 계신 거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생기는 거지,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불(佛)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교예요. 이 풀 한 점도 전부 이심전심으로, 꽃 한 송이도 이심전심으로, 목신도 다 이심전심으로 얘기하고 갑니다. 말하고 가요. 하나도 말 안 하는 게, 돌 하나도 말 안 하는 게 없고 돌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 움죽거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장승이 그냥 움죽거리지 않고 있는 줄 아시죠? 허허.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막론해 놓고, 내가 미국에 가서 얘기했듯이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하는 논쟁을 벌인다면 당신네들은 종교 믿을 가치가 없어. 불교는 어느 한군데에 국한된 게 불교가 아니다. 끝 간 데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를 불교라고 한 거다. 불은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을 말하고 교는 이 세상을 말한다.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 정신계와 육신, 즉 말하자면 물질계가 통합해서 작용하는 것을 100% 불교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우주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이 벌어진 그 가설된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립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뭔 소리가 저렇게 많아? 당장 나는 이게 급한데 말이야.' 이러시지마는 고것이 쪼끄맣든 크든,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그 재료로 나는 공부를 한다. 재료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해. 아무 뭐, 걱정 근심도 없고 누워서 떡 먹기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 배짱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부딪침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정신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고. 그러니까 외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고 환란이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하, 이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공부를, 이 길을 걷지 못할 텐데 이 길을 걷게 돼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길 만들어 놓은 데만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은 사방이 다 터졌으니까요.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사방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 안에 앉았어도 댁의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겁니다. 뭐가 어디에 놓이고 어디에 놓여 있는 거 다 아시고 오실 겁니다, 아마. 이 공부를 해서 밝은 눈으로, 심안으로 본다면 저 달나라엘 가서도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보고 찰나에 올 겁니다, 아마.

'아, 요렇게 급한데 이런 거는 얻다가 팽개치고는 저렇게 말이 많으니 그까짓 게 무슨 소용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자기가 산 대로, 나쁘게 살았으면 나쁘게 모습을 받을 거고 좋게 살았으면 좋게 모습을 받을 겁니다. 이 모습은 없어졌다가 또 생길 때에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딴 형상을 가져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독사, 뱀이 됐더랍니다. 뱀이 돼서 한 철 나고 '내가 마음을 개심해서 인도환생을 해야지. 도로 나 살던 데로 나가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뱀의 습이 그냥 쌓이고 쌓여서 그 모습을 벗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절 근처 바윗돌 밑에 가서는 항상 목탁 소릴 듣고 염불 소릴 듣고, 시식을 지내면 돌 위에다 조금씩 놓는 거 그걸로 연명을 하고 지내다가, 어떤 스님이 시식을 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거늘 그래도 돌 밑에서 도를 닦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생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시면서 막대기로 탁 돌을 때렸는데 고만 거기에서 환상이 다 그냥 없어지고,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우리네가 볼 땐 죽었다 이거죠. 죽고 환생을 했단 얘기죠, 그 모습을 벗고.

그래서 거길 와서 그렇게 하던 그 뱀들이 그냥 그 모습들을, 껍데길 전부 고스란히 벗어 놓고들 환생을 했어요. 환생을 해서 다시 그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중이 돼서 도를 닦더랍니다. 도를 닦다가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럭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을, 한 생이 다 이런 것도 없고 두 생이다 이런 것도 없이 끝 간 데 없이 건지셨답니다. '다 건지고 나는 맨 나중에 가야지.' 하고선 문고릴 잡았는데 끝이 없더랍니다. 끝이 없어서 문고릴 놓지 못했답니다. 하하하….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이다 공덕이다 하는 건 천지 차입니다. 복을 받는다 하는 건 한번 받고 치우면 그뿐이지만 공덕이라는 건 세세생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돌을 하나 큰 거를, 영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거를 꼭 들어서 옮겨 놔야 될 텐데 이 돌을 못 들 때, 모두 와서 같이 드는 거하고 하나가 들려고 할 때 못 드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죠? 여럿이 들면 가볍게 들어서 놓을 수 있고 들어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의 전체가, 하다못해 개미 새끼 하나 안 버리고 한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한마음이 돼서 이룩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평손이다'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드기 발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발이 자기 발 아님이 없는 까닭에 바로 평발인 것입니다. 생김생김이 뭉툭하게 평발이 돼서 평발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 모든 중생, 모든 세균서껀 어느 거든지나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고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평발이요, 평손이요, 항상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여러분의 마음이 참, 남한테 이익하게 행동해 주고 이익하게 말해 주고 이익하게 뜻을 가지고 항상, 가정에서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거는 모든 거를 그 한마음 속에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항상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스스로서 같이 밝아진다 이겁니다.

스스로서 같이 밝아지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지마는 전력은 다 똑같고 전력이 들어오는 건 못 보고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생명의 근본은 다 있고 그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 저쪽에도 불이 들어오듯이 한 가정이 한 통, 한 방이라면 한 방에서 다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리죠. (중략)

> **세상에 한 번 나왔다 한 번 가는 거는 정한 이치이고**
> **사는 날까진 꼭 살 텐데 죽는 게 그렇게 어렵고**
> **나라는 걸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입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그렇게 모이듯이 한 가정이 모였다 하면 벌써 보는 놈도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합니까?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다가도 큰 거를 골라서 이렇게 놓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고 팝니다, 끼리끼리. 모두가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니 누구 원망하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정이 화목함으로써 아, 돈이 나가다가도 '아이구, 이 집은 화목하니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저절로 들어오는데 돈을 쫓아가면 자꾸 달아나가요. 또 병고도 그래요. '병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내가 빨리 죽으면 이 자식들은 어떡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도, 세 살 먹은 애도 가다가 차가 가니까 내빼. 허허허…. 살 양으로 내빼는데 아니, 그 자식들 다 커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될까 봐 그 야단입니까, 네?

그저 모든 거, 병고도 '아하, 내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병고가 이렇게 생겼으니 병붙을 자리가 어딨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입다 돌아가는데, 일분일초도 안 걸려서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와 같은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나. 내 공부 시키느라고 이런 액이 온 거다. 그러니까 그저 공부할 재료다.' 이럭하고선 '너밖에,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지.' 하고선 거기다 되놔야 입력이 다, 앞서의 게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그릇이 비어서 홀연히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벌써 내 맘부터 편안해져요. 둘째, 내 가정이 조금 화목해지는 듯해요. 셋째, 애고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실험과 체험을 하는 겁니다.(중략)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해서 한데 합쳐서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그냥 자연히 돌아가는 그러한 진리고, 그런 끝 간 데 없는 진리니 그거를 마음으로 좀 더 넓혀서 좀 넓게 생각을 해라. 하나도 걸리게, 내게 언짢고 걸리게, 남에게도 언짢고 걸리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르다 옳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 왜냐. 그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르다 옳다 이런다면 벌써 그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르다 옳다가 없다. 왜 없느냐. 잘하던 사람도 못할 수 있고 못하던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물건도 나쁘게 나왔다가도 좋게 나올 수 있고 좋게 나왔다가도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요런 생각을 했다가도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했다가도 요런 생각을 해. 그러니 하나도 그냥, 이게 그르다, 저게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선 공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 공부는 아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한데 뭉쳐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이게 그르고 이게 옳고, 이게 밉고 이게 예쁘고 온통…. 같이 사는 남편도 예쁜 짓을 했다가 미운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했다가도 예쁜 짓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미운 짓을 했다가도 금방 예쁜 짓을 하면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냥 대견하기만 하죠, 자식도 그렇고. 그런 건데 이거는 꼬드겨서 쥐고선 이건 그른 거고 이건 옳은 거고, 그런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간다면 이 선 공부는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1월 5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